

올 한해를 빛낸 바둑계 스타는 누구일까.

국내 바둑계의 한 해를 결산하는 2006 바둑대상 시상식이 오는 2007년 1월 1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시상은 경쟁부문과 기록부으로 나누어 총 11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2006년 한 해 동안 최고의 성적을 기사에게 주어지는 최우수 기사상 후보는 모두 5명.



<이창호 9단>

<이세돌 9단>

<박영훈 9단>

<최철한 9단>

<박정상 9단>

올 최고의 바둑스타 "나요! 나"

이창호·이세돌·박영훈·최철한·박정상 9단 등 5명 압축

MVP 이창호-이세돌 2파전, 감투·신예 부문 각축 치열

▲최우수 기사상=프로기사 랭킹과 상급랭킹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이창호 9단과 올 하반기 단숨에 종횡 5관왕에 오른 이세돌 9단이 최우수 기사상을 놓고 박빙의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랭킹 3, 4위에 랭크된 최철한 9단과 박영훈 9단, 그리고 후지쓰배에서 우승해 한국 기사로서는 유일하게 국제대회 정상을 차지한 박정상 9단도 후보에 올랐다.

▲감투상=삼성화재배 4강 진출로 노익장을 과시한 서봉수 9단과 강원랜드배 3연승, 거성전 준우승을 차지한 안준영 9단, 마스터즈 토너먼트 우승자이자 친원전 결승에 올라 있는 조한승 9단, 마스터즈 서바이벌 우승자 원성진 7단 등 4명이 후보로 뽑혔다.

▲신예기사상=일성 단 한 번밖에 수상할 수 없는 신예기사상 후보는 이영구 6단(왕위전 SK 가스배 준우승), 허영호 5단(비사카드배 우승),

백홍석 5단(삼성화재배 4강 진출, SK가스배 우승), 홍민표 5단(LG배 4강 진출), 윤준상 4단(국수전 도전권 획득) 등 5명. 후보 개개인의 우열을 가리기 힘든 만큼 어느 해보다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여자기사상=여자기사상은 여류기사, 여류명인, 여류기성 등 3개 여류기전을 석권한 후이 나이웨이 9단이 강력한 수상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국내 여자바둑계의 간판스타인 조혜연 7단, 박지은 6단, 그리고 2006 한국바둑리그 유일한 한국인 홍일점인 김혜민 4단이 후보로 나선다.

네트즌들이 선정한 남녀 인기기사상 온라인 투표는 한국기원(www.baduk.or.kr)과 인터넷바둑사이트 사이버로 홈페이지(www.cyberoro.com)를 통해 시상식 전날인 1월10일까지 진행된다.

▲다승·연승=다승 부문은 이세돌 9단이 74승으로 2위 윤준상 4단(61승)을 밀쳐잡고 따돌리며 사실상 수상을 확정지었다. 14연승으로 연승상도 수상하게 된 이 9단은 승률상 역시 74%로 2위에 올라 있어 기록부 3관왕에 오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승률상은 원성진 7단과 백홍석 5단이 75%로 공동 1위에 올라 있다.

경쟁 부문의 수상자 선정은 일간지, 방송사, 인터넷 등의 바둑담당기자, 관전기 필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에서 투표를 통해 선정하며 수상자는 시상식 당일 현장에서 발표된다.

▲다승·연승=다승 부문은 이세돌 9단이 74승으로 2위 윤준상 4단(61승)을 밀쳐잡고 따돌리며 사실상 수상을 확정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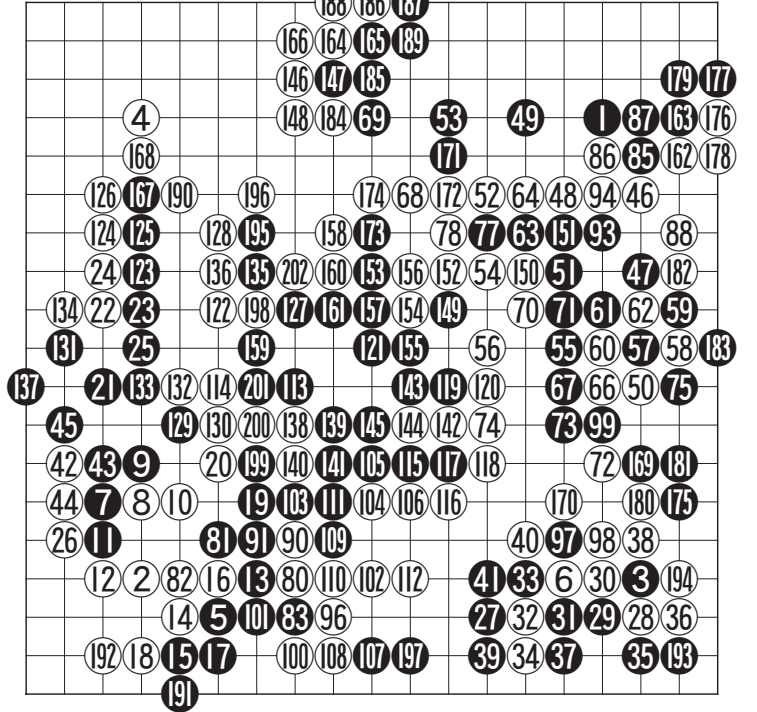
14연승으로 연승상도 수상하게 된 이 9단은 승률상 역시 74%로 2위에 올라 있어 기록부 3관왕에 오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승률상은 원성진 7단과 백홍석 5단이 75%로 공동 1위에 올라 있다.

경쟁 부문의 수상자 선정은 일간지, 방송사, 인터넷 등의 바둑담당기자, 관전기 필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에서 투표를 통해 선정하며 수상자는 시상식 당일 현장에서 발표된다.

제15회 光日盃 광주 전남 직장바둑왕 등극

정장호 직장바둑왕 등극
홍보(1~202)

白 정장호 5단 <포스코> 黑 이강민 5단 <PCA생명>



광주일보사가 이 지역 직장인들의 바둑보급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주최하는 바둑대회가 벌써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넘어 15회째 꾸준히 열리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직장바둑 동호인들이 이 대회에 참여하여 우의를 다지고 실력을 겨루고 있는데 올해의 개인전 결승전은 첫출전인 PCA 생명의 이강민 5단과 포스코의 정장호 5단이 맞대결을 펼쳐 직장바둑계에도 세대교체의 기운이 불어오고 있다.

불꽃튀는 접전 끝에 영예의 우승컵은 포스코의 정장호 5단이 차지했는데, 포스코는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우승, 개인전 3위를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켜 당분간 포스코의 독

주거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강민 5단의 패인은 첫째 우편의 접전에서 66으로 막아 패를 하

지않고 59로 막아 패를 한데 있었다. 66에 막아 패를 했다더라면 백도 부담이 커서 실전처럼 쉽게 패감을 쓰지는 못했으리다.

두번째로는 중야에서 백이 142로 찢러들어 왔을 때 흑 143으로 물러선 것이다.

이 수로 144에 막았더라면 상변을 166으로 찢히는 수순을 얻어 끝내기 승부가 되었을 것이다. 백이 거꾸로 164로 찢히는 차이가 벌어졌다. 정장호 5단은 첫출전에 영예의 직장바둑왕에 등극했다. 백 202수 끝, 백 불계승.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시사만화 '광수생각'

'바둑생각'으로 지탄생

인기 시사 만화 '광수생각'이 '바둑생각'으로 안방극장을 찾는다.

케이블록 배급 바둑TV가 '광수생각'의 저자 박광수씨와 함께 '광수생각'을 바둑에 접목한 애니메이션 '바둑생각'을 선보인다. 각각 2분 분량의 짧은 애니메이션으로, 내년 3월까지 모두 10편이 방영된다. 바둑TV가 빛내고 있는 연중 캠페인(생각의 힘)의 연장선상에서 제작된 '바둑생각'은 바둑을 일상생활과 접목, 서민들의 삶을 공감있게 담아낸 바둑만화다.



'바둑생각'은 남녀간의 사랑, 가족의 정, 친구간의 우정을 바둑으로 풀어나간다. 바둑TV는 총 10편의 '바둑생각'을 주요 프로그램 중간 중간 짧은 프로그램으로 선보인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7기 비사카드배 '신예돌풍'은 계속된다

박승화 초단 등 3명 2회전 진출

비사카드배에서 신예돌풍이 이어질까. 비사카드배 신인왕전은 지난 15기 대회에서 김동희 초단이 결승에 오른 것을 비롯 등 '초단 돌풍'의 진원지다. 제17기 대회에서도 신예돌풍의 서막이 오르고 있다. 박승화 초단이 최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본선 1회전에서 김진우 3단을 백 불계로 꺾고 2회전에 진출했다. 승리한 박승화 초단은 박승철 5단과 대국한다. 이번 17기 대회는 3명의 초단이 본선 무대를 밟아 박승화, 전영규 초단이 본선 2회전에 진출, 초단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비사카드배 신인왕전은 입단만 10년 이하 기사들만 출전할 수 있는 제한 기전이다. 본선은 24강 토너먼트. 우승상금 2500만원(준우승 1천만원)이다. 역대 우승자는 목진석, 김만수, 이상훈, 조한승, 이세돌, 송태근, 안준영, 박영훈, 허영호 등 9명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Megabox and other services, including movie listings and contact information.

Large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featuring various listing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gencies like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and '현대공인중개사'.